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

고영근*

1. 들어가면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국어연구 자료는 그 수도 얼마 안되거니와 한자를 빌려 쓴 이른바 차자자료가 대부분이어서 15세기 이전의 우리말의 모습을 올바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 그런데 지난 70년대 중반에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자료가 발견됨을 계기로 하여 국어사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었다. 그때까지는 계림유사와 향약구급방 등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어휘의 모습만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 석독구결이 얼굴을 내밀게 됨에 따라 어휘의 영역을 벗어나 음운이나 문법의 여러 측면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곳에서는 석독구결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거두어들이면서 이들 자료가 지니고 있는 국어사적 가치를 문자/표기, 음운, 문법, 어휘에 걸쳐 확인해 보려고 한다. 그 사이 고대국어와 중세국어 사이에는 고려 400여년에 걸친 자료상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국어사 서술의 불연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동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속성이 가로놓여 있었다. 석독구결의 검토를 통하여 국어사의 불연속성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우리말의 총체서술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1]

2. 문자와 표기법에 관련된 문제

석독구결자는 대체로 후대의 순독구결자와 같이 한자의 어느 한 부분을 따서 만든 약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결자는 일본의 가나와 같이 본질적으로 음절문자에 속하기는 하여도 그것이 우리말의 전면적인 표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찰이나 이두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향찰이나 이두는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문자로서의 자족적인 기능을 띠고 있었으나 구결자는 한문을 번역하거나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한자의 보조문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2] 그러나 문자를 만드는 원리에 있어서는 향찰이나 이두와 차이가 없다. 한자의 음이나 훈을 빌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3] 이런 점에서 석독구결을 향찰이나 이두와 함께 차자표기체계에 넣는다. 문자론적 측면에 설 때 향찰, 이두, 석독구결, 순독구결은 뚜렷한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

15세기에 창제된 훈민정음은 음운문자라는 점에서는 이전의 차자표

---

1) 국어사 서술에 있어서 "연속성"의 개념은 문법사를 중심으로 한 이현희('95)가 참고되고 총체서술과 관련되는 논의는 고영근('93:10)을 보라.

2) 송기중('97)에서 구결자의 성격을 한자의 보조문자로 규정한 흥미 있는 견해를 볼 수 있다.

3) 차자표기체계를 세울 때 한자의 음과 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별 한자가 표시하는 뜻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된 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이 문제가 깊이 논의되어 차자표기의 성격을 정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뒷날을 기다린다.

기와 불연속성이 인정되나, 운용과정에서는 음절문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더욱 그것이 차자표기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에서 창제동기를 구할 수 있다는 점[4]에서 차자표기와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한편 차자자료에서 확인되는 어간부의 훈독표기는 훈민정음 제정 직후 일부 문헌에서 시험된 어간고정표기나 현대 맞춤법의 어간고정표기와 함께 표의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기상의 연속성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필자가 고영근('93)를 통하여 세운 바 있는 자소부에서 차자표기의 문제가 한글 자소와 큰 무리 없이 통합될 수 있어 보인다.[5]

향찰에는 한 단어의 끝 음절 내지 끝소리를 표기하는 이른바 말음첨기라는 특이한 표기법이 목격된다. 이 가운데는 한 단어의 끝소리(받침)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 주는 표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6]

(1) 必只(반ᄃᆞᆨ)/千隱(즈믄)/道尸(길)/心音(ᄆᆞᅀᆞᆷ)/城叱(잣)

(1)을 통하여 우리는 중세어의 받침 'ㄱ, ㄴ, ㄹ, ㅁ, ㅅ'에 해당하는 소리가 이른바 말음첨기라는 표기법에 의하여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기법은 석독구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 但ㅅ(오직)/一ㄱ(ᄒᆞᆫ)/十尸(열)/壽ㅁ(목숨)/物ㄷ(갓)

---

4) 이 문제는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에서 명백히 진술되어 있고 최근의 차자표기의 연구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확인된 바 있다. 관련논의는 안병희('77: 129), 이승재('89), 강창석('92) 등을 보라.

5) 필자는 자소부의 소관으로 한글과 한자 및 로마자 문제만 대상으로 하였었다.

6) 관련 자료는 이건식('95), 신중진('98)에서 가져왔다.

(1)의 향찰은 한자의 본자에 기대어 끝소리가 표기되어 있고, (2)의 석독구결은 한자의 약자에 기대어 표기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같은 차자표기의 원리를 바닥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표기상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향찰과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받침표기의 전통은 15세기의 훈민정음 자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낱낱의 글자를 결합시킬 때 받침글자를 글자의 끝에 붙이는 운용법은 향찰과 석독구결의 말음첨기와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를 바닥에 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역시 자소부의 소관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총체서술의 과제가 될 수 있다.

3. 음운론적 제 문제

석독구결이 반영하는 음운론적 정보에 대하여는 그 사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석독구결을 통하여 고려시대의 음운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종성체계를 세우고 모음조화를 확인하는 문제를 이전의 향찰과 이두와 관련하여 풀어 내는 일도 해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석독구결의 음운현상을 구명하는 데 있어서는 석독구결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자음의 성격을 밝히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이전의 향찰이나 이두자료가 반영하고 있는 한자음의 기층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순독구결이 반영하는 한자음과는 그 선후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7] 사실 차자표기자료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고대한자음의 기층문제가 깊

7) 김무림('98)은 석독구결의 한자음의 기층을 구명하려고 시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에는 국어한자음의 형성 및 변천과정은 물론, 국어음운사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8]

그 사이 한정된 자료, 이를테면 계림유사, 향약구급방, 이중력(二中曆) 등에 나타나는 어휘자료를 중심으로 어두자음군, 파찰음, 반치음, 순경음, 음절말자음의 내파화 등의 자음론을 펼치고, 고려사에 전하는 몽고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모음론을 펼침으로써 음운체계의 실상이 많이 구명되기는 하였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처지에 이르지 못하였다.[9] 석독구결자료는 근본적으로 문법자료(형태·통사자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한자음의 기층이 구명되면 고려시대의 음운체계를 보다 자세히 구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작업 역시 국어음운사 서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총체서술의 범위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이 틀림없다.

4. 형태음운론적 제 문제

중세어에는 체언에 조사가 붙거나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 어간이 바뀌는가 하면 어미도 모습을 달리하는 일이 적지 않다. 석독구결자료에 중세어에서 보는 체언의 형태교체나 용언의 형태교체가 있었는지는 아직 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조사의 경우도 중세어에서 보는 갖가지 교체양상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도 쉽게 단정할 수 없다.(뒤에 나옴) 그러나 용언 형태부에서는 교체의 양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이 문제를 중세어와 대비하여 가며 검토하기로 한다.

---

8) 권인한('97)에는 그 사이 이루어진 한자음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고대국어의 한자음이 상고음과 중고음의 복합적 성격을 띠었다가 이른바 전기중세국어에 접어들면서 이중성이 극복되어 중고음체계로 자리를 잡았음을 간추린 바 있다.

9) 이 방면의 정보는 이기문('72a:93~9, 1972b:117), 김동소('98:40~65)를 보라.

먼저 'ㄱ, ㄷ' 계열의 조사나 어미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Ø, ㄹ'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기로 한다.[10]

(3) 가. 히와 돌와(비교:입과 눈과)
나. 알오(비교:가고), 여희에(비교:가게), 나라히어늘(비교:가거늘)
다. 나라히라(비교:가다), 가리라(비교:가다)

(가)는 'ㄱ' 계열의 접속조사 '과'가 모음과 'ㄹ' 아래에서 '와'로 교체되는 예이고, (나)는 '연결어미 '고, 게, 거늘'의 첫소리 'ㄱ'가 'ㄹ'와 하향이중모음 및 계사 아래에서 'ㅇ'로 교체되는 예이다. (다)는 'ㄷ' 계열의 어미가 계사와 추측법 '리' 뒤에서 'ㄹ' 계열의 어미로 교체되는 예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12세기 자료로 간주되는 구역인왕경과 화엄경에는 (3)과 같은 교체가 표기상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11]

(4) 가. … 等ㅅ 慧ㅅ 灌頂(인왕경 11, 1)
나. 煩惱乙 離支ㅁㅏ(인왕경 3, 11)
다. 自ㅋ… 二ㅣㅌㅣㅋㅗㅣ(인왕경 15, 6)

(가)의 'ㅅ'는 받침의 유무에 관계 없이 사용되는 접속조사라는 점에서 (3가)와는 달리 'ㄱ:ㅇ'의 교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나)의 '離支ㅁㅏ'이 '여희곡'으로 해독되는 것이 정확하다면 하향이중모음 뒤에서 'ㅇ'로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아래에서 'ㄱ'가 'ㅇ'로 교체되는 예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12] (다)의 'ㅋㅗㅣ'는 계사 'ㅣ'(이)에 뒤따르는

10) 이 문제는 이승재('94, '96b)에서 논의된 것을 수용하였다.
11) 이곳의 용례는 기존의 논저에서 가져오되 구결학회(편), 구결자별 색인(1997.5.1)과 대조를 거쳤음을 말해 둔다.
12) 유가사지론의 '知ㅁㅣ'(유가사지론 구결자 색인 42~3면 참조)가 '알오다'로

'ᄀᆞᄐᆞ'(앗)을 적은 것으로 본다면 확인법과 감동법의 혼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법 '거'와 감동법 'ㅅ'의 혼효형은 15세기 후반 자료인 두시언해에서 '것'이란 모습으로 처음 나타나는데,[13]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는 계사 아래 '것'의 교체형인 혼효형 'ᄀᆞᄐᆞ'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 근거한다면 12세기의 석독구결에는 계사 아래에서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었으며 그것은 확인법과 감동법의 혼효라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이승재('94, '96)에 기대면 구역인왕경에서 계사에 국한하여 나타나던 'ㄱ' 계열과 'ㅇ' 계열의 수의적인 교체현상이 14세기초의 남권희본 능엄경에서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ㄷ'계열의 어미가 'ㄹ' 계열의 어미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기로 한다. 이러한 교체는 화엄경과 구역인왕경에서 볼 수 있다.

(5) 가. 法性ㄱ 本…ㅅ 無ᄂᆞᆫᄀᆞ 性ㅣᄆᆞᆷ(구역인왕경 14, 25)
나. 淸淨行ㄴ 說ᄀᆞᄅᆞᄆᆞᄀᆞ ㅣᄆᆞᆷ(화엄경 8, 23)
다. 幻化ㅣ 幻化ㄴ 見ᄒᆞᄀᆞ ㅣᄆᆞᆷ(구역인왕경 14, 1)

(가)는 체언 '性' 아래 'ㅣᄆᆞᆷ'가 쓰였기 때문에 계사의 활용형으로 처리하는 일이 있다.[14] 중세어의 (3다)의 '나라히라'와 동일한 활용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다)는 이른바 동명사형 'ㄱ' 아래 계사가 쓰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중세어의 이른바 둘째설명법어미 '니라'를 분리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든 'ᄆᆞᆷ'(라)는 'ㅣ'(다)에

읽혀지는 것이 정확하다면 'ㄹ' 아래의 'ㅇ' 교체의 예로 채택할 수 있다. 이는 박진호군이 제보하여 주었다.

13) 고영근('81='98a:151)에 그 용례와 해석이 나와 있다.

14) 'ㅣᄆᆞᆷ'는 중세어의 비슷한 구문과 관련시킬 때(허웅 1975:559~61), 연결어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더 많은 예의 확보가 필요하다.

대응되는 평서법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승재('94)에 기대면 위의 두 문헌에는 계사 아래 'ㅣ'가 선택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두 형태의 교체는 수의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추측법 'ᄎᆞ'(리) 아래에서는 (3다)의 중세국어의 어형 '가리라'와 같이 필수적으로 'ᄫᅡ'로 교체되었다.

끝으로 중세어에는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보통의 모음어미와 만나게 되면 'ᅀᅡ'로 모습을 바꾸는 일이 있다.[15]

(6) 가. ᄒᆞᅀᅡ, ᄒᆞᅀᅡ놀
나. ᄒᆞᅀᆞᆷ, ᄒᆞᅀᅡ뎌, ᄒᆞᅀᆞᆫ, ᄒᆞᅀᅡᆺ다

(가)는 '아' 계열의 종속적 연결어미가 붙을 때, (나)는 '오' 계열의 어미가 붙을 때, 그들 모음 앞에서 '시'가 'ᅀᅡ'로 교체되는 예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는 '시'는 'ㅅ'로 적혀 있으나 중세어의 'ᅀᅡ'에 해당하는 형태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16] 그러나 다음 예는 'ᅀᅡ'로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7) 가. 滿足ㅅㄱ(금광명경 3; 13:21)
나. 方ㄴ 十地ㅣ十 座ㅅㄱ下(구역인왕경 2, 11)

(가)의 'ㅅ'가 중세어의 '시'에 대응되는 높임의 선어말어미이다. (나)의 'ㅅㄱ下'(ᄒᆞ시하)는 그 사이 그 해독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왔으나 '97년의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중세어의 연결어미 'ᅀᅡ'에 대응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주어 명사구가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에는 'ㅅㅑ'(ᄒᆞ야) 등으로 적히기 때문

15) '시'와 'ᅀᅡ'의 교체에 관련된 논의는 고영근('97a)에 기대기로 한다.
16) 석독구결의 주체높임의 분포와 기능은 백두현('95)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용례는 주로 이곳에서 취하기로 한다.

이다. 곧 주어명사구가 높임의 대상이 될 때에는 'ᄂᆞᄆᆞᄒᆞ'로, 그렇지 않을 때에는 'ᄂᆞᆞ'로 실현되는 것이다. 중세의 한글문헌에는 'ᅀᅣ'와 같이 한 글자로 적히는데 석독구결에서는 왜 두 글자로 적히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으나 이는 공연한 근심에 지나지 않는다. 중세 한글문헌에는 두 글자로 적혀도 한 형태소로 처리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ᄒᆞ야니여'의 '니여'는 두 글자로 적혀 있지마는 형태소 분석원리를 적용하면 단일형태소에 지나지 않는다.[17] 'ᅀᅣ'를 적을 수 있는 마땅한 글자가 없어서 두 글자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고려 이전의 고대국어 단계에서 위의 세 형태교체의 실상이 어떠하였는지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마는 석독구결의 검토를 통하여 변화의 한 모서리를 더듬을 수 있다. 'ㄱ'과 'ㅇ'의 교체는 12세기 또는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부터 시작하여 14세기초에 이르러 중세어와 같은 환경에서 교체가 완료되었으며 'ㄷ'과 'ㄹ'의 교체는 환경에 따라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었고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ㅅ'와 'ㅿ'의 교체는 이미 12세기초에 확립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석독구결이 얼굴을 내밀기 전에는 고려시대의 국어에서 위의 세 형태교체의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그 사정을 어느 정도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필자는 우선 형태파악이 손쉬운 위의 세 형태에 국한하여 고려시대의 굴절형태의 교체양상과 변화의 모습을 그려 보았지만 앞으로 고려시대의 구결자료에 대한 연구가 깊이를 더하면 형태교체에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드러나게 되리라 믿는다. 어쨌든 석독구결의 발견은 고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형태음운론에 관련된 불연속성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17) 중세어의 의문법의 분석에 대한 논의는 고영근('81/98a:17)을 보라.

5. 체언굴절에 관련된 제 문제

석독구결이 나오기 전에는 계림유사의 어휘자료를 통하여 격형태를 더듬어 보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으나,[18] 석독구결의 발견이 계기가 되어 고려시대의 격형태와 보조사 종류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19] 필자 고영근('93:104)의 격체계에 따라 대표적인 형태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형태는 중세어의 형태임)

(8) 석독구결의 격체계
가. 주격조사: ㅣ(이)
나. 속격: ᄀᆞ(ᄋᆡ/의), ᄉᆞ(ㅅ)
다. 대격: ᄂᆞ(ᄋᆞᆯ/를)
라. 부사격:
1) 처소: ᄋᆞ+(아긔), ᄆᆞ+(믜), ᄀᆞ(ᄋᆡ/의) 2) 도구: ᄆᆞᆺ(로)
마. 호격: 下(하), ᄋᆞ(아), ᄉᆞ(여)
바. 접속조사[20]: ㅅ(과), ㅗ/ᄉᆞ(여)

대체로 중세어와 큰 차이가 없다. 주격의 경우, 끝음절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고 'ㅣ'가 사용되어 있다. 곧 '體ㅣ'와 같은 표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중세어에서 '如來ㅣ…'와 같이 끝음절이 'ㅣ'로 되어 있어도 다시 'ㅣ'를 붙이는 표기법이 이미 석독구결 당시부터 확립되어 있어 주격조사의 표기법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석독구결의 격형태의 특징은 이른바 여격을 포함한 처소부사격이다.

---

18) 이승욱('72:269~82)을 통하여 그런 노력의 한 가닥을 엿볼 수 있다.
19) 관련자료와 정보는 남풍현('77), 이건식('96), 백두현('95)에서 얻었다.
20) 접속조사는 명사구를 이어 줄 뿐 아무런 격관계도 표시하지 않는다. 따로 세워야 할 것이나 이곳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격체계에 넣었다. 접속조사를 흔히 공동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9) 가. 衆生ㅋ十 限ㅋ 無ㄱㅌㅌ 利ㅋ尸のㄱ 與ンㅌヲ分(화엄경 12, 7)
나. 心ㅇ十 怯弱 無ㅌㅛ(화엄경 4, 22)

석독구결의 처소부사격에는 '긔'로 읽히는 '十'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9)의 예이다. 백두현('95:263)에서는 (가)의 'ㅋ十'는 중세어의 평칭의 여격표시어 '익/의게'와 관련시키면서 후자를 단순히 '익/의 그에'의 단축형일 수 없다고 하였다.[21] 고려시대에 단축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그 시기가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나)의 'ㅇ十'는 '아긔'로 읽힌다고 하는데 (가)의 형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못하다. 처소부사격은 그 쓰임이 매우 복잡하여 중세어와의 연속성이 쉽게 맺어지지 않는다. 해독의 미숙함에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석독구결이 지닌 강한 의고성에 말미암는지 단정할 수 없다.

보조사는 대체로 중세어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대조에는 'ㄱ', 특수(흔히 강세)에는 'ㅅ'(사), 각자에는 'ヂㅣ'(마다), 단독에는 '火七'(붓) 등이 확인되어 중세어와의 연속성이 확인된다.

6. 용언굴절과 이와 관련된 통사론적 제 문제

앞의 체언굴절과 마찬가지로 용언굴절에 있어서도 석독구결이 나오기 전에는 계림유사를 통하여 형태론을 구성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22] 석독구결의 발견으로 적어도 자료상의 빈곤은 면할 수 있

21) 필자는 오래 전에 고영근('61=95:328)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익/의게'가 '익/의 그에'의 단축형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단축형이라는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음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22) 이승욱('73:273~291)을 보라.

게 되었다. 석독구결은 동사형태론의 보고(寶庫)라고 할 만큼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도 대체로 어미형태론을 구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바쳐 왔다.

크게 보면 석독구결에서도 중세어의 어미부에서 발견되는 형태론적 질서가 거의 그대로 확인된다.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사동 및 피동의 접사가 어떤 형태로 적히고 있으며 특히 능격동사와 같은 동사의 확인도 문제될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모두 보류하기로 한다. 이곳에서는 어미류에 국한하여 기능상의 특수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어미류를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에 따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를 범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형태소의 괄호 안에 중세어의 해당형태나 그에 가까운 형태를 들기로 한다.

(10)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체계[23]

가. 白(숩)
나. ニ/ㅎ(시)
다. ろ/ㅁ/ノ(오)
라. ナ(겨?)
마. ヒ(ᄂᆞ)/ト(누), 彳(리)
바. 氵(아), 厶(거), 口(고)
사. 七(ㅅ)

(가)는 대체로 중세어 낮춤의 선어말어미 '숩'과 그 기능이 비슷하나 부분적으로는 특이한 면이 보인다(뒤에 나옴). (나)의 'ニ'는 'ㅎ'로도 적히는데, 앞에서도 잠깐 본 바와 같이, 중세어의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와 비슷하며 '샤'에 가까운 모습으로 교체되는 일면이 있었다. (다)의 'ろ'는 'ㅁ, ノ'로도 적히는데 대체로 중세어의 선어말어미 '오'를 표기한

23)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는 주로 백두현('97)을 참조하였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능상으로는 중세어와 다소 차이나는 점이 있다.(뒤에 나옴) (라)의 'ㅓ'는 석독구결 특유의 선어말어미로서 해독과 기능이 복잡한 곳이 많아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나 이곳에서는 백두현('97)을 따라 '겨'로 읽되 시제나 서법 관련의 선어말어미로 보기로 한다. 고려 후기의 순독구결이나 15세기의 한글 자료에 이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석독구결의 특이성과 의고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순독구결이나 한글문헌과의 불연속성을 어떻게 극복하여 총체서술에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형태소의 기능을 면밀하게 추구하는 길밖에 없다.

(마)의 'ㅌ'와 'ㅔ'는 중세어의 직설법 'ᄂᆞ'와 추측법 '리'에 각각 대응되는데, 회상법에 해당하는 구결자가 잘 보이지 않아 기본서법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특히 'ㅌ'는 'ㅅㅌ효'에서 보는 것처럼 명령형에도 나타나 중세어와의 강한 불연속성이 드러난다. 'ㅏ'도 'ᄂᆞ'에 대응되는 기능을 표시하기도 하나 양자간의 관계가 아직 분명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 (바)의 'ㅋ'와 'ㅈ'는 중세어의 확인법과의 연속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그것이 타동성의 자질 여하에 따라 변별되는 이형태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ㅁ'도 앞의 두 구결자와 밀접한 상관성을 주장하는 일이 없지 않으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형태 및 기능상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중세어와의 심한 불연속성에 그 원인이 있다. (사)는 감동법의 선어말어미로서 'ㅋ, ㅁ'에 후행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중세어의 감동법 '옷//돗, ㅅ'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감동법과 확인법의 혼효형인 '것'과 비슷해 보인다.

중세어의 선어말어미 가운데서 특이한 기능을 보이는 것은 낮춤의 선어말어미 '白'이다.[24] 이 글자는 '숩'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자는 '숣'을 훈독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어말어미로 사용될 때에

24) 이 문제에 대하여는 백두현('95)과 박진호('97)을 보라.

는 '숩'[25]으로 읽고 있으나, '白'의 뜻과 관련시킬 때 올바른 해독인지 문제가 적지 않다. 그것은 어쨌든 다음 예를 비교해 보면 15세기 용법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분명해진다.

(11) 가. 若 能 法ᄒᆞ+ 如ᄒᆞᆫ 佛ᄉᆞ 供養ᄒᆞ白ᄒᆞᄆᆞ入ᄀᆞ…(화엄경 11, 12)
나. (釋迦牟尼佛ᄀᆞ) 復ᄒᆞᄀᆞ…千寶蓮花ᄉᆞ 出ᄒᆞ白ᄒᆞᄀᆞᄆᆞ…(구역인왕경 02, 12)

(가)는 목적어명사가 높임의 자질을 띠었다는 점에서 주체의 행위를 표시하는 활용형에 '白'이 사용되었다. 중세어의 용법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나)는 특이하다. 주체인 '석가모니불'의 행위에 '白'이 쓰였다. 중세어라면 '시'가 선택되는 자리인 것이다. 이를 두고 백두현('95:108)에서는 현토자와 관련하여 용법상의 특이성을 설명하고 있고, 박진호('97)에서는 문법화와 관련된 과도기적인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자일 가능성이 많으나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白'의 기능이 분명히 파악되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15세기의 선어말어미 '오'를 적은 'ㆆ'의 기능이다. 'ㆆ'는 'ㅎ/ㅇ'로도 적히는데(앞에서 나옴), 기능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중세어의 '오'는 그 용법이 매우 복잡하여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 중세어에서는 '오'를 언제나 앞세우는 어미가 있는가 하면 어미에 따라 '오'를 앞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부류가 있다. 전자는 어미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된 형태소의 자격이 없으나 후자는 통합관계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형태소의 자격이 충분하다. 형태소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형사형이냐 비관형사형이냐에 따

25) 이 형태의 기본형을 사람에 따라 '숩, 숩, 숩'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숩'이 아니면 '숩'으로 적어야 옳다. '숩'은 책정기준에 있어서 일관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관련논의는 고영근('97b, '98b)을 보라.
26) 석독구결자의 'ㆆ'의 분포와 그 기능에 대하여는 백두현('96, '97)을 보라.

라 기능을 구별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일도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는 비관형사형에서 'ㅇ'가 나타나는 일이 매우 드물어 의의 있는 작업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 석독구결에도 중세어처럼 항상 '오'를 요구하는 어미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연구가 제대로 진척되어 있지 않다. 비관형사형에서 'ㅇ'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 문헌의 성격에 말미암은 것인지, 석독구결의 의고성에 그 원인이 있는지, 해독의 잘못에 있는지 단언할 수 없지만, 이는 중세어와의 강한 불연속성을 드러낸다. 관형사형을 중심으로 기능상의 특수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12) 가. 崔勝因ㄴ 依ᄒᆞ 先ᄒᆞ 說ㅅㄱ 事ㄴ…(유가사지론 23:11-, 18)
나. 微細ㅅㄱ 諸相ㅣ…(금광명경 07, 25-08, 01)

(가)의 '說ㅅㄱ'은 '오'가 쓰인 '혼'에 해당하는 예인데 피수식어 '事'가 '說ㅅㄱ'의 목적어가 된다는 점에서 중세어의 이른바 대상법의 '오'와 완전히 일치한다. (나)는 '오'가 빠진 '혼'에 해당하는 예인데 피수식어 '諸相'이 '微細ㅅㄱ'의 주어가 되어 중세어의 이른바 주체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사실들은 석독구결과 중세어의 해당 문법사실을 통합서술하는 데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의존명사구성에서 '오' 가 사용되는 등 중세어와 합치되는 점이 적지 않다.

선어말어미에 이어 어말어미의 체계를 구성해 보기로 한다. 학교문법의 체계에 따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크게 나누고 후자에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를 두기로 한다.

(13) 석독구결의 종결어미 체계[27]

27) 석독구결의 종결어미는 김두찬('95), 정재영('95a, '96), 장윤희('98)을 참고하였다.

가. 평서형어미:ㅣ(다), ᄆᆞᄉᆞᆸᄂᆡ(옳다)
나. 감탄형어미:ㄱᆞ(ㄴ뎌), ᄅᆞ(ㄹ뎌), ᄉᆞ(ㅅ뎌)
다. 의문형어미:ㅁ(고)/ᄋᆞ(아)
라. 명령형어미:ᄒᆞ쇼(ᄂᆞ셔), ㅁᄒᆞᄉᆞ쇼(고기시셔)
마. 청유형어미:ᄌᆞ(져)

(가)의 'ㅣ'는 환경에 따라 'ᄆᆡ'(라)로 실현되는 일이 없지 않으나 필수적이 아니라 함은 이미 확인하였다. 어쨌든 중세어와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석독구결에는 당위평서형어미 'ᄆᆞᄉᆞᆸᄂᆡ'가 발견되는데 이는 향찰에서도 볼 수 있으며, 중세어에 '옴ᄯᅡ'(뵈욤ㅅ다)'란 모습으로 그 여천(餘喘)을 남기고 있다.[28] 향찰로부터 석독구결을 거쳐 중세의 한글문헌에까지 꾸준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중세어에서는 대체로 'ㄹ디니라'로 나타난다. 중세어에 오면서 연속성이 단절되어 'ㄹ디니라'로 대체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구성상으로는 관형사형어미나 그에 상당하는 구성에 'ᄉᆞ'가 붙어 형성된 것인데 중세어의 감탄법어미 'ㄴ뎌' 등과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

(다)는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의 형태가 구별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더 많은 예의 확보가 요청된다. (라)는 명령형어미인데 'ᄒᆞ쇼'는 동사는 물론, 자동사, 형용사, 계사에 붙는다는 분포상의 특징이 있다. 대우의 등급은 예사높임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ㅁᄒᆞᄉᆞ쇼'는 아주높임의 등분을 표시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아주 낮춤의 형태가 문증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석독구결에도 중세어와 같이 세 등분의 존비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형태상으로는 부분적인 유사성만 보일 뿐 연속성이 쉽게 간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도 석독구결의 특이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마)는 청유형어미인데 예가 많지 않아 포괄적 기술을 하기가 쉽지 않다. 'ᄌᆞ'가 '져'를 적은 것이 틀림없다면 청유법으로

28) '옳다'의 용례에 대하여는 이현희('95)에서 지적된 바 있다.

볼 수 있다. 중세어에도 ᄒᆞ라체의 청유법은 그 예가 흔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연결어미의 실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14) 연결어미의 체계
가. 대등적 연결어미:ㅁ(고), ᄀᆞ(며), ᄒᆞ(저)
나. 종속적 연결어미:ㄱ(ㄴ), ㄴ(ㄹ), ㄱㄴ(늘), ᄀᆞ(나), ㄴㅅㄱ(ㄹ 든), ᄋᆞ(아/어), ㅅㄱㅁ(온디), ㅅᄀᆞㅁ(올디)

(14)는 연결어미를 편의상 대등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으로 나눈 것이다. 석독구결자료에 중세어의 보조적 연결어미에 대응되는 형태는 아직 확인되어 있지 않다.

(14가)는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14나)는 중세어와 관련시킬 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많다. 'ㄱ'과 'ㄴ'은 관형사형 내지 이른바 동명사형어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예는 연결어미로 해석해야 한다.[29]

(15) 가. …三昧ㄷ 中ᄒᆞ十 住在ㅅᄒᆞㅅㄱ…(화엄경 17, 04)
나. 佛 言ᄀᆞㅅᄀᆞ 善男子ᄒᆞ…(금광명경 2, 25)

(15)는 동명사의 용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가)는 '하니'로, (나)는 '하되'로 해석되는데 접속의 기능을 띠고 있다. (가)와 같은 예는 중세어에 더러 보이기도 하여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인식된다. 다음 예가 그런 범주에 든다.

(15′) 如來 닐온 나 이슈미 곧' 나 이슈미 아니어늘…(금강경언해 하, 135장 뒤)

---

29)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남풍현('96a:33, '96b:241)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곳의 '닐온'은 (15)의 '住在ᄉᆞᆫᄀᆞ'과 같이 '이르되, 이르니'의 기능을 띠고 있다.[30] 그러나 중세어에서 'ㄹ' 어미가 접속적 기능을 발휘하는 예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15)에 나타나는 'ㄱ'과 'ㄷ'의 접속적 용법에 기초하여 이들을 연결어미의 범주에 넣어 두기로 한다. 이들 어미가 이른바 동명사의 용법과 맺는 관계는 뒤에서 종합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4나)의 'ㄱㄴ'과 'ㄴㅅㄱ'도 연결어미의 기능을 띠고 있다.[31]

(16) 가. …法才菩薩ㄱ 五百億大衆ㅣ 俱ᄉᆞᆫㄱㄴ(*ᄒᆞᄂᆞᆯ) 共ᄒᆞ 來ᄉᆞᆫᄉᆞᄒᆞ
(구역인왕경 3, 7-8)
나. 此陀羅尼呪ㄴ 誦持ᄉᆞᆫ白ㅁㅏㄷㅅㄱ(ᄒᆞᄉᆞᆸ고결ᄃᆞᆫ) 得ᄉᆞᆫᄉᆞᄒᆞ…
(금광명경 09, 16)

(가)의 'ㄱㄴ'은 이른바 동명사 'ㄱ'에 대격조사 'ㄴ'이 붙은 구성도 있으나 이곳에서는 연결어미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뒤에 타동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ㅅ'는 의존명사로 해독되는 일이 없지 않으나 이곳에서는 연결어미로 보는 것이 옳다. 그것은 'ㅅ'가 후행 서술어의 어떤 성분으로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나)의 'ᄂᆞㄱㅁ'와 'ᄂᆞㄷㅁ'도 연결어미의 기능이 분명하다.

(17) 가. 菩薩ㄷ 四地ᄉᆞᆫ十ㄱ 是 相ㅣ 前現ᄂᆞㄱㅁ(혼ᄃᆡ)…(금광명경 6, 4-5)
나. 出家ᄂᆞㄷㅁ(홀ᄃᆡ) 礙ㄷ…(화엄경 3, 06)

(17)의 'ᄂᆞㄱㅁ'와 'ᄂᆞㄷㅁ'를 관형사형어미에 의존명사가 붙은 구문으로

30) 어미 'ㄴ'의 접속적 용법은 이미 이현희('94:329~413, 특히 357면)을 보라.
31) 이 두 어미의 특수성에 대하여는 이용('97, '98)을 보라.

해석하기도 하나(남풍현 '96a:26), 단순한 연결어미로 보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오래 동안 우리 학계에는 원인의 연결어미 'ㄹ씨' 등을 관형사형과 의존명사의 통합체로 해석하는 일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인다.

끝으로 흔히 동명사형으로 처리되는 'ㄱ'과 'ㆆ'을 비롯한 전성어미의 기능을 검토하기로 한다. 중세어의 전성어미에는 명사형어미 '옴'과 관형사형어미 'ㄴ, ㄹ'이 있다. 명사형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들지 않고 관형사형만 들기로 한다.

(18) 가. 自杜詩ᄒᆞᄂᆞ로 已十年이오(두시언해 권11, 5장)
나. 德이여 福이여 호놀…(악학궤범, 동동)
다. 너펴 돕ᄉᆞ오미 다ᄋᆞᆷ 업서(법화경언해 서, 18장)

(18)이 'ㄴ'과 'ㄹ'이 명사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들 뒤에 의존명사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동명사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형사형어미의 특수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32] 중세어의 관형사형어미 'ㄴ'과 'ㄹ'에 대응되는 석독구결의 'ㄱ'과 'ㆆ'의 용법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건드려 보고자 한다.

(19) 전성어미의 체계
가. 명사형$_1$:ㅎ(ㅁ)
나. 명사형$_2$:ㄱ(ㄴ), ㆆ(ㄹ)
나. 관형사형: ㄱ(ㄴ), ㆆ(ㄹ)

(가)는 명사형어미로 간주되는 예인데 중세어의 '옴'과는 달리 모습도

32) 필자는 고영근('81=98:80, 90, 108)에서는 관형사적(부가어적) 용법과 동명사적(자립적)인 용법을 구분하여 다루었으나 고영근('87=97:156)에서는 허웅('75)를 따라 관형사형에 통합하여 다루었다.

다르고 통합관계도 다르며 거기다가 해독도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과연 중세어와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사형어미로 볼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기능상으로 명사형의 기능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는 점에서 명사형어미의 부류에 넣되 (나)와 구별한다는 뜻에서 명사형1이라 부르기로 한다.

(15)에서 우리는 'ㄱ'과 'ㄹ'이 연결어미로 사용되었음을 본 바 있는데 석독구결에는 중세어의 (18)과 같이 자립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이 나온다.[33]

(20) 가. 正法ㄴ 聽聞ㅅㄱㅋ(ᄒᆞ의) 得ㅅㄱ 所ㄴ…(유가사지론 06, 07-13)
나. 路ㅣ 無塵ㅅㄱㄴ(ᄒᆞᄂᆞᆯ) 見ㅈㄱㅣㅓㄱ(화엄경 5, 03)
다. 空閑ㅅㄱㅋㅓ(ᄒᆞ의긔) …(유가사지론 10, 02-12)

(20)은 어미 'ㄱ'에 격조사가 연결되는 것이다. (가)는 속격 'ㅋ', (나)는 대격 'ㄴ', (다)는 처소부사격 'ㅋㅓ'가 붙은 것이다. 이 밖에도 계사와 보조사가 붙는 일이 있고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는 일도 있다. 주격표지가 붙는 일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다.

(21) 가. 教誡ㅗ 教授ㅗㅅㄹㄴ(여 홀을) 說ㅅㄹㅅㄴ 得ㅎㅅㅈ(유가사지론 03, 05-11)
나. 其心ㄴ 搖亂ㅅㄹㅅ(홀과)…(유가사지론 10, 02-12)
다. 又 煩惱ㅗ 後有業道ㅗㅅㄹㄱ(여홀은)…(유가사지론 31, 11-17)

(21)은 어미 'ㄹ'에 격표지가 붙은 것이다. (가)는 대격 'ㄴ'이, (나)는 접

33) 이 문제는 심재기('79)에서 구역인왕경의 자료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다루어졌고 남풍현('96abc)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용례는 남풍현의 기고에서 주로 가져오되 구결색인집과의 대조를 거쳤다.

속조사 'ㅅ'가, (다)는 보조사 'ㄱ'이 각각 붙은 것으로 해독된다. 앞의 'ㄱ'과 같이 격표지가 나타나지 않은 일도 있다. 이곳에서도 주격표지와 결합되는 예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0)과 (21)에 나타나는 석독구결의 'ㄱ'과 'ᄇᆞ'의 용법은 (18)의 중세국어의 용법과 똑 같다. (18가)는 어미 'ㄴ'에 도구부사격 'ᄋᆞ로'가 붙었고 (18나)는 고려가요의 예인데 어미 'ㄴ'에 조사 'ᄋᆞᆯ'이 붙은 것이다. (18다)는 격표지가 생략된 것이다. 석독구결만큼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지마는 중세어에도 이른바 동명사형에 격표지가 붙는 것이다. 중세어에서 이른바 동명사형에 격표지가 붙는 현상에 대하여 의존명사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 이상, 석독구결의 똑같은 현상에 대하여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석독구결에 어미 'ㄱ'과 'ᄇᆞ'이 이른바 동명사형으로 쓰이기만 한다면 모르되 관형적(부가어적) 용법[34]이 나타나는 이상, 같은 문법형태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을 주는 것은 문법서술을 번거롭게 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15)에서 필자는 'ㄱ'과 'ᄇᆞ'의 연결어미의 성격을 부각시킨 일이 있는데 이른바 동명사형과 맺는 관계를 풀어 보기로 한다. 'ㄱ'과 'ᄇᆞ'의 자립적 용법은 숨어 있는 의존명사의 설정을 통하여 관형적 용법으로 통합시킬 수 있으나, (15)의 접속적 기능은 마땅한 방도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두 경우의 어미를 일종의 동음이의적인 것으로 처리하여 하나는 연결어미로, 하나는 관형사형어미로 처리하는 바이다.[35]

'ㄱ, ᄇᆞ'의 두 용법은, 중세어 이후의 어미 '게(긔)'가 보조동사와 결합하여 보조적 연결어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형용사에 붙을 때에는 부사어의 기능을 띠는 것과 비슷하다.

(22) 가. 학교에 가게 되었다/공부를 하게 하였다.

---

34) 'ㄱ'과 'ᄇᆞ'의 관형적(부가어적) 용법의 용례는 남풍현('96abc)를 보라.
35) 필자는 두 형태의 기원문제는 일단 논외로 한다.

나.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22)는 최현배 이후 부사형어미로 다루어 왔으나 1985년에 출간된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단일화하였다. 그렇게 처리해도 여전히 형용사에 붙는 '게'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아 두 개의 '게'를 설정하여 하나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하나는 부사형어미로 처리하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는데,[36]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석독구결이나 중세어의 일부 문헌에 나타나는 연결어미의 용법을 띤 'ㄱ'(ㄴ)과 'ᄅᆞ'(ㄹ)에 대하여 두 가지의 용법을 주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 이는 중세어와 현대어의 연결어미 '어'가 보조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비슷한 점이 없지 않다. 그것은 어쨌든 석독구결의 관형사형의 자립적 용법은 관형적 용법과 통합할 수 있으며 연결어미로 쓰이는 것과는 기능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중세어에까지도 그 여천(餘喘)이 남아 있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학계에는 석독구결이나 향찰 등의 차자자료를 다룰 때에 동명사형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일을 종종 보는데 이는 우리말의 형태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결여와도 관계가 없지 않은 것 같다. 단순한 어미에 지나지 못한 것을 구결자의 분리적 표기에 현혹되어 분석을 극도화하는 일이 적지 않게 눈에 뜨인다. 공시적인 쓰임새보다는 국어가 기원적으로 명사문이었다는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바탕으로 통시적 설명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 적지 않게 관찰된다.

---

36) 필자는 두 경우의 '게'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보조적 연결어미와 부사형어미에 분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행 학교문법에는 부사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7. 어휘론적 제 문제

석독구결자료가 본질적으로 문법자료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의미부의 말음첨기의 표기법에 근거하여 고려시대의 어휘를 재구할 수 있다. 우리는 계림유사와 향약구급방을 통하여 적지 않은 고려시대의 어휘를 얻을 수 있는데 석독구결의 발견을 통해서도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37]

화엄경 석독구결을 통해서는 형용사를 재구할 수 있다.

(23) 無ㄷナㅣ(없겨다), 可ㄷン(짓ᄒᆞ), 應ㄷン(맞ᄒᆞ)

(23)은 형용사 어간의 끝소리의 흔적을 적은 'ㄷ'이 표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제시한 바와 같은 어휘의 재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廣ㅂ'와 같이 접미사 'ㅂ'에 의해 '너비'로 읽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예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근의 끝소리가 표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어휘는 재구의 방도가 막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38]

다음으로는 말음첨기에 의해 부사류를 재구할 수 있다.

(24) 必ㅅ(반ᄃᆞ기), 與ㄷ(다ᄆᆞᆺ), 及ㄷ(ᄆᆞᆺ), 正ㄷ(못), 方ㄷ(비릇/ᄆᆞᆺ), 悉ㅈ(다아/다)

부사의 경우도 앞의 형용사와 같이 말음첨기에 기대어 재구할 수 있다. (21)은 'ㅅ, ㄷ'로 끝나는 중세어의 해당 부사와 일치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제시한 어형의 재구가 가능하다.

---

37) 이 방면의 연구는 이승재('95), 정재영('95), 김영만('97)에서 얻을 수 있다.
38) 이 문제는 萱野裕臣('87)에서 강조된 바 있다.

8. 비교문자론에 관련된 문제

석독구결에 기댄 한문 읽기와 이로 말미암아 형성된 석독구결의 자형은 일본의 한문 읽기와 가나문자의 형성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39] 석독구결에 의한 독법과 그 자형이 7세기 후반에 설총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견해가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데,[40]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41] 일본의 훈점(訓點)은 한국의 석독구결에 기댄 독법과 너무나 흡사하고 가나문자의 모양도 우리의 석독구결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일본의 한자 전래가 백제를 통하였고 신라와도 긴밀한 문화교류를 가졌던 만큼 차자에 의한 고대 두 나라의 문자형성에서도 모종의 정보교환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문제는 한일 두 나라의 문자의 형성과정과 문화사에 얽힌 숱한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다.[42]

9. 마무리를 지으며

이상 필자는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의의를 문자/표기, 음

39) 이 방면의 정보는 築島裕(1997), 윤행순('97)을 보라.

40)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설총의 이두 창작설을 다시 비춘 안병희('84='92:274)를 보라.

41) 菅野裕臣(1986)에서는 구역인왕경의 구결과 관련하여 일본의 한문훈독의 기원을 한국에서 찾으려 하였고 藤本幸夫('92)에서는 8세기 신라에 유학한 일본의 화엄종 승려들에 의해 일본의 훈독법이 신라로부터 전수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출한 바 있다.

42) 이 문제는 일찍이 이숭녕(1955=1978)에서 제기되었고 이종철(1983)에서 구체적인 비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다. 관련논의는 菅野裕臣(1986)을 보라.

운, 형태음운, 체언굴절, 용언굴절과 통사구조, 어휘에 걸쳐 살펴보고 끝으로 비교문자론의 관점에서 일본의 문자 및 한문독법의 사정과 비교하여 보았다. 석독구결이 비쳐 주는 표기법과 언어현상은 중세어와의 연속성이 확인되어 우리말의 통체서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도 없지 않았으나 반면 강한 불연속성이 가로놓여 있어 중세어의 지식으로 해독이 되지 않는 일도 적지 않았다. 특히 용언굴절에서 그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는 중세어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무리하게 끌어붙이는 태도보다는 불경의 원문을 토대로 문법형태의 기능을 면밀하게 추구함으로써[43] 석독구결 나름의 언어·문자상의 질서를 발굴하여 국어사 내지 우리말의 총체적 서술에 통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기대면 석독구결은 표기법에서부터 언어현상에 이르기까지 14세기 이후의 순독구결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향가나 이두와 접맥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석독구결이 반영하고 있는 고대어적 측면과 연관되지 않나 한다. 최근 김동소('98:15)에서 모음체계의 변천을 기준으로 국어사의 시대구분을 새로이 시도한 바 있는데,[44] 이곳에서는 고대어의 시기를 광개토대왕의 비문이 건립된 5세기초(414년)부터 국어의 모음체계가 변질된 14세기까지 잡고 있다.[45]

지금까지 발견된 석독구결자료가 대체로 12세기에서 13세기말에 걸친다는 사실과 관련시킬 때, 구결자료가 보여 주는 형태·통사론적 특징도 결국은 음운론적 특징과 병행되는 고대어의 한 단면이 아닐까 한

43) 이를테면 백두현('95)에서 보여 준 태도는 석독구결의 문법형태의 기능을 파악하는 좋은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4) 김동소('98)에서는 종전의 언어내사와 언어외사가 뒤섞여 있었던 국어사의 시대구분론을 비판하면서 모음체계의 변질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로 나눌 것을 제안한 바 있다.

45) 14세기의 모음체계의 변화는 이기문(72ab)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다. 이른바 후기중세국어의 끝 시기인 16세기 중엽의 언어현상도 음운론적 사실의 특수성이 형태·통사론적 특수성과 보조를 같이 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46] 김동소('98)의 구분체계는 우선 모음체계의 변천이라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였고 동시에 형태·통사론적 특징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설득력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한다면 석독구결은 고대국어의 자료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참고 문헌

강창석(1992), 「15세기 음운이론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고영근(1981/1998),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보정판), 탑출판사.
_____(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_____(1987/1997), 『표준중세국어문법론』(개정판), 집문당.
_____(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_____(1997a), 「중세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와 '오'계 어미의 형태론」, 『한국어문논총』, 태학사, 63~91면.
_____(1997b), 「중세어의 'ㅸ, ㅿ' 규칙활용론에 대하여」, 『국어학연구의 새 지평』(성재 이돈주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731~760면.
_____(1998a),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보정판), 탑출판사.
_____(1998b), 「중세어에는 과연 'ㅂ, ㅅ' 불규칙활용이 없을까」, 『국어학논집』 3, 태학사.
권인한(1997),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283~344면.
김동소(1997),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두찬(1995), 「구역인왕경 구결체계」,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161~213면.
김무림(1998), 「석독구결 음차자의 독법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18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46) 이 문제는 일찍이 이기문('59='78)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영만(1997), 「석독구결 '皆ᄂᆞ, 悉ᄋᆞ'와 고려향찰 '頓部叱, 盡良'의 비교 고찰」, 『구결연구』 2, 1~25면.
남풍현(1977), 「향가와 구역인왕경 구결의 '之ᄯᅴ'에 대하여」, 『언어』 2.1.
_____(1996a),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1~48면.
_____(1996b), 「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에 나타난 ᄆᆞ의 용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228~51면.
_____(1996c),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ᄆᆞ/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 1~48면.
박진호(1997), 「차자표기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117~45면.
백두현(1995),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어문논총』 29, 45~70면.
_____(1996a),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의 '-ㅎ-'의 분포와 문법기능」, 『어문논총』 30, 93~136면.
_____(1996b), 「고려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29~95면.
_____(1997),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 '-ㅎ(오)-'에 대한 통사적 고찰」, 『진단학보』 83, 235~72면.
송기중(1997),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성격」, 『새국어생활』 7.4, 5~29면.
신중진(1998), 「말음첨기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 『제18회 구결학회 공동연구 발표논문집』.
심재기(1979), 「동명사의 통사적 기능에 대하여」, 『문법연구』 4, 157~173면.
안병희(1977),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_____(1992), 『국어사연구』, 문학과지성사.
윤행순(1997), 「일본어사에서의 訓點의 위치와 성격」, 구결학회 여름연구회 발표논문
이건식(1995),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이기문(1959/1978), 「16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학선서』 3, 탑출판사.
_____(1972a),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탑출판사.
_____(1972b), 『국어음운사연구』, 한국문화연구소/탑출판사.

이승녕(1955/1978), 「신라시대 표기법체계에 관한 시론」, 『국어학선서』 1, 탑출판사.
이승욱(1972),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이승재(1989), 「차자표기 연구와 훈민정음의 문자론적 연구에 대하여」, 『국어학』 19, 203~39면.
_____(1994), 「고려 중기 구결자료의 형태음소론적 연구」, 『진단학보』 78, 308~26면.
_____(1995), 「화엄경 구결의 상태동사 어간」, 『한일어학논총』, 495~522면.
_____(1996a),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주체경어법 선어말어미 '-ㅅ(겨)-'」,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517~56면.
_____(1996b), 「'ㄱ' 약화·탈락의 통시적 연구」, 『국어학』 28.
이 용(1997), 「'乙'에 대하여」, 『구결연구』 2, 131~160면.
_____(1998), 「연결어미 '-거든'의 문법사적 고찰」, 『제18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이종철(1983), 『鄕歌와 萬葉集歌의 表記法 比較硏究』, 집문당.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_____(1995), 「국어문법사 기술의 연속성과 관련된 한 두 문제」, 서강대학교 국문과 창과 30주년기념학술강연회.
장윤희(1998), 「중세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정재영('95a),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221~65면.
_____('95b),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285~316면.
_____('96), 「종결어미 '-立'에 대하여」, 『진단학보』 81, 195~214면.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菅野裕臣(1986), 「韓國과 日本의 借字表記에 대하여」, 『제4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藤本幸夫(1992), 「李朝 訓讀考(其一)」, 『朝鮮學報』 142, 109~67면.
築島裕(1997), 「日本의 漢文訓讀硏究의 回顧와 展望」,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태학사.